

당진슬래그 공장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①윤재철 사원 ②김진우 사원 ③이근원 과장 ④김광희 소장
⑤신철중 반장 ⑥김휘명 사원 ⑦전신영 사원 ⑧김중범 부장
⑨양원석 과장 ⑩유상중 주임 ⑪양재훈 주임 ⑫강병규 대리
⑬김민정 사원 ⑭박상호 사원 ⑮이창진 실장 ⑯엄종규 기장
⑰고현환 사원 ⑱한준현 대리 ⑲엄광원 기장 ⑳김대영 공장장
㉑김영후 사원 ㉒윤인근 대리

〈삼표가 GREEN 세상〉여름호에서는 노란색 해바라기가 돋보이는 당진슬래그 공장을 찾았다. 계속되는 사진 촬영에 지칠 법도 하건만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임직원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웃음꽃이 만발이다. 이들의 기분 좋은 에너지 덕분에 업무 현장은 언제나 맑음! 해바라기만큼이나 화사한 웃음이 당진슬래그 공장을 행복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Special Theme	여름, 불타는 도전의 계절	03
테마 Talk! Talk!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주)삼표시멘트 부산영업팀 손호균 부장 (주)삼표 감사팀 남윤식 과장	04
테마 프리즘	도전! 우리들의 버킷 리스트 TOP 3	08
—		
Hot Issue	삼표그룹 브랜드 슬로진 제작	10
꿈과 꿈	(주)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	14
SOS	삼표기초소재(주) 당진슬래그 공장	18
삼표의 어제와 오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삼표레일웨이(주) 분기기	20
—		
오늘은 내가 쓴다	당신은 나의 든든한 러닝메이트입니다 (주)삼표산업 개발2팀 고재영 부장	22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 지식	제임스 다이슨의 빛나는 도전정신	24
포토 이벤트	삼표인 무한 도전	26
즐거운 밥상	무더위 나는 특효, 영양 만점 콩국수	28
Topic & News		30
삼표인 소식		36
Quiz & Notice		37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주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www.sampyo.co.kr

발행일 2017년 7월 17일(계간·비매품·사내한·통권 55호) 발행인 남병규 편집인 이소정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전화 02-6270-0767

편집·디자인 네오메디아 인쇄 영은문화사

여름, 불타는 도전의 계절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글 장석주 시인

한여름 태양이 뿜어내는 황금빛 열기 속에서 나무들은 푸르고 무성하게 성장한다. 여름 숲은 태양의 단련 속에서 울울창창해진다. 나는 한여름 더위를 피해 울울창창한 숲과 그늘을 찾는다. 여름의 숲 속에서 나는 자주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숙고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내 가슴에 품은 화두였다. 나는 매번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란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꿈을 이룰 때 생의 보람과 기쁨을 거머쥌 수 있기 때문이다. 꿈꿔라! 그 꿈을 위해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라! 꿈은 의지나 욕망의 시작점이다. 산다는 것은 곧 꿈꾸는 것이고 그 꿈을 위한 솔한 도전의 연속이다.

더 많이 꿈꾸고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 꿈이 사라지면 감정은 메말라 증발한다. 기쁨도 열정도 없이 타성에 젖은 채 사는 것은 결국 후회를 낳는다. 가슴 뛰는 일이야말로 내 재능과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이다. 가슴 뛰는 일은 영혼을 담고 매진할 수 있는 천직이다. 영혼을 담아 할 수 없는 일들은 타인이 요구하는 비자발적 노동이다. 타인의 요구에 따르는 비자발적 노동은 우리 내면을 권태로 물들이며 그 시간은 한없이 늘어진다.

분명한 것은 삶과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즉 아무 도전 없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인생은 지루하고 밋밋해진다. 바다를 단번에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냇물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어학 공부이든 자기 개발이든 먼저 시작하라. 인생에서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라! 더 많이 시도하라! 가슴 뛰는 일들을 꿈꾸고 뜨겁게 갈망하라!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 거기에 영혼을 담고 항상 전부를 걸어라!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구성원의 도전과
열정은 성과를 창출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자기 개발의 귀감이
된 손호균 부장과
현혈 150회 달성을
목표로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남윤식 과장의
꿈과 열정을 소개한다.

글·사진 홍보팀 김선영



부단한 학구열로 이룬 자기 개발의 끝판왕!

(주)삼표시멘트 부산영업팀 손호균 부장

작년 한 해 사이버연수원 최다 학점 수강(16학점), 올해 또한 최고 기록(5학점)을 자랑한다. 올여름 역시 자기 개발로 불태울 계획이라는 손호균 부장의 2017년 목표를 들어보자.

Q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매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업인으로서 고객을 만나 처음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어요. ‘생존 지향 자급자족형 인간’인데요. 저를 임팩트 있게 소개하는 방법이자 삶의 모토입니다. 더 많은 고객을 만날수록 제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를 만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지속적인 학습과 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제 안의 소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닦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Q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부장님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명견만리〉,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처럼 미래 사회를 다룬 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삼표그룹이 시멘트 회사를 인수할지 그 누구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

저만의 자기 개발
노하우는 시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Q 부장님만의 자기 개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저의 생활 속 원칙은 ‘시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편인데, 차량 운전 시 USB에 동영상과 음성 강의를 담아서 음악 대신 듣고, KTX를 탈 때에도 책을 읽습니다. 부산-서울 간 이동 거리 정도면 글씨 크기가 큰 책의 경우 한 권을 너끈히 정독할 수 있습니다.

Q 2017년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언론과 업계에서 미세 먼지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해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동료들과 같이 콘크리트기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업종은 물론 실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Q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삼표 가족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프로그가 아마추어와 다른 점은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시간이 없다’ 혹은 ‘돈이 없다’, ‘피곤하다’와 같은 핑계를 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점 초과로 더 이상 사이버연수원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외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의 ‘MOOC(www.mooc.org)’와 ‘코스라(www.coursera.org)’를 애용했습니다. 공부하고자 마음먹으니 실천할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삼표인 여러분! 직장 생활로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직장고 팀에서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나눔 정신 실천하는 69.5리터 헌혈왕! (주)삼표 감사팀 남윤식 과장

남윤식 과장이 지난 20여 년간 헌혈한 양은 자그마치 69.5리터.
시중에 파는 2리터짜리 생수통으로 34통이 넘는 양이다.
올해 목표는 헌혈 150회. 현재까지 139회를 달성해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Q 처음 헌혈했던 순간, 그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단팍이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입원'이란 단어에 '수술'과 '피'를 떠올렸고 친구를 돕자는 마음으로 스스로 헌혈을 강행했어요. 다행히 친구 상태가 제 생각과 달리 심각하지 않아서 수술을 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어요. 그 후로 20여 년간 100회 이상 헌혈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Q 헌혈을 해오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3년 전 가을, 지혈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움직이다가 오른쪽 팔에서 피가 팔팔 쏟아진 적이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죠. 심지어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충격이 꽤나 컸어요. 헌혈 직후 과다 출혈은 쇼크로 이어져 간혹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헌혈의 집에 있던 모든 간호사분들이 모여 조치를 취했죠. 정말 급박했던 상황이라 기억에 남아요.

Q 어떤 종류의 헌혈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건강에 무리가 없다면 가능한 한 자주 하고 싶지만 헌혈 종류에 따라서 채혈 가능 주기가 다릅니다. 전혈 헌혈¹⁾은 2달 간격, 성분 헌혈²⁾은 2주일 간격으로 가능한데요. 저는 주로 성분 헌혈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퇴근 후 방문하기 쉬운 본사 이마빌딩 근처 광화문 헌혈의 집에서 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헌혈하러 가실 분들 연락 주세요!

※전혈 헌혈¹⁾: 적혈구와 백혈구, 혈장 등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것.
성분 헌혈²⁾: 혈액 가운데 일부 성분만 분리하여 채혈하는 것.



“헌혈을 통해 제 혈액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Q 헌혈을 하면 어떤 기념품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는 USB,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종류는 지점에 따라 무척 다양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광화문 헌혈의 집은 텀블러, 카드 지갑, 화장품, 영화 관람권 등을 줍니다. 참고로, 기념품 대신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우 이웃에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목표인 150회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제 혈액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점에서 느껴지는 뿌듯함이 아닐까 싶어요. 헌혈 후 받게 되는 헌혈증은 원하는 사람에게 기부할 수 있어요. 헌혈증을 받은 사람은 헌혈증 1장에 혈액 1팩(300~500ml)을 수혈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수시로 혈액이 필요한 가족 및 지인들에게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어요. 특히 조모님의 고관절, 심혈관 수술에 헌혈증을 기부했는데 그때 헌혈증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죠. 가장 최근에는 본사 이마빌딩 보안팀장의 동료가 백혈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헌혈증 15장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삼표 사무원 중에서 헌혈증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대한 돕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 도전! 우리들의 버킷 리스트 TOP 3 】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봤을 ‘죽기 전 꼭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 소망이 현실이 될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삼표인들에게 물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삼표 가족들의 버킷 리스트를 전한다. 정리 편집실

㈜네비엔 소각영업팀 한정협 대리

- ① 할머니, 부모님, 아내 그리고 딸까지 4대가 함께 가족사진 찍기
- ② 국내부터 해외까지 틈틈이 여행 후 다녀온 곳을 색칠해 우리 가족만의 여행 지도 만들기
- ③ 내가 그린 그림, 찍은 사진들로 나만의 갤러리 열기

㈜삼표 인재개발팀 조민규 대리

- ① 나라별로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등반하기
- ② 300억을 벌어서 난치병 아동 치료를 위한 ‘조민규재단법인’ 설립하기
- ③ 올해 8월에 있을 노무사 2차 시험 합격하기

㈜삼표시멘트 TS1팀 윤경상 팀장

- ① 아들 회갑 때 내 나이는 100세! 아들 회갑잔치에 참석해 술 한 잔 따라주기
- ② 아내와 함께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놀기
- ③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바닷가에 펜션을 지어 자연 가까이에서 살기

㈜삼표 시스템1팀 최윤석 사원

- ① 자전거로 미국 대륙 횡단하기
- ② 자서전 출간하기
- ③ 멋진 사람들이 모이는 홍익대학교 근처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1층에 오픈형 카페 운영하기



㈜삼표산업 혼화제공장 관리과 이혜현 사원

- ① 철인 3종 경기 참가하기
- ② 독도를 여행하며 SNS에 독도의 아름다움 홍보하기
- ③ 영어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어, 국어자격증 취득하기

㈜삼표 사회공헌팀 김희준 사원

- ① 세계 일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과 문화, 자연환경 경험하기
- ② 관객이 아닌 배우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하기
- ③ 나만의 책을 출간해 이름 남기기

삼표기초소재㈜ 영업2팀 남한나 사원

- ① 영화 <라라랜드>처럼 파리에 있는 재즈바에 가서 음악에 흠뻑 취해보기
- ② 고등학생 때 실패한 한라산 등반 재도전하기
- ③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하기

삼표기초소재㈜ 중기팀 하상현 사원

- ① 어릴 때부터 간직한 꿈, 밤하늘의 은하수 보기
- ② 일주일 동안 자전거 여행하기
- ③ 미술랭 3스타 음식점 가서 맛보기

㈜삼표산업 골재생산지원팀 김동혁 대리

- ① 아들과 여행 100번 다녀오기
- ②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1년에 2번 헌혈하기
- ③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만들어 골재 생산 관련 재능 기부하기

※버킷 리스트 사원 당첨자 9명에게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삼표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

지난 5월, 우리 그룹은 출범 이후 최초로 그룹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했다. 새롭게 제작된 그룹 브랜드 슬로건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는 삼표그룹의 50년 역사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문장이자, 우리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문구다. 앞으로 우리 그룹은 오랜 기간 다져온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건설기초소재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리딩 컴퍼니로 거듭날 것이다. 글 홍보팀 이소정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의 필요성 대두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삼표그룹은 건설기초소재 기업으로서 레미콘, 콘크리트, 철도, RECYCLING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건설 사업의 초석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2015년에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해 업계 최초로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며 건설기초소재 No.1 그룹으로 우뚝 섰다.

지난 2년은 우리 그룹에도, 내부 임직원에게도 도전과 변화의 시간이었다. 그간 우리 그룹은 동양시멘트와 각 사업군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연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또 삼표시멘트로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그룹 계열사의 사명을 일원화해 내부 임직원의 결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그룹은 당사의 경영 철학이나 목표를 담은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부재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

티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 COO(Chief Operating Officer)인 정대현 대표가 그 일환으로 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을 제안했다.

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에 박차를 가하다

정대현 대표를 필두로 하여 진행된 이번 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의 가장 큰 목표는 차별화된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을 통한 당사의 비전 제시였다. 프로젝트는 T/F(Task Force Team) 구성을 시작으로 경영진 심층 인터뷰,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임직원 설문 조사 및 그룹 홍보 영상 제작으로 이어졌다.

우선 경영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도출해내기로 했다. 경영진이 추구하는 경영 콘셉트를 파악해 명확한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이 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당사 회장님을 비롯해 최병길 사장, 정대현 부사장 이하 주요 경영진에 대한 심

층 인터뷰가 진행됐다. 경영진의 경영 철학을 반영해 T/F는 1)고객에게는 **‘믿을 수 있는 최고급 건설 자재를 제공’**하고, 2)경쟁사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하며 3)**‘앞서가는 건설 문화를 창조하는’** 조직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세 가지 코어 아이덴티티를 도출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Build Basic(기초를 세우다)’**이라는 우리 그룹의 브랜드 에센스가 정립됐다. 그룹 브랜드 에센스는 세 가지 아이덴티티를 통합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를 말한다. ‘Build Basic’에는 건설 산업의 기본이자 기초인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정진해온 **‘기본기가 탄탄’**하고 **‘정직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회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도출된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좁혀나간 결과, 최종 후보에 오른 그룹 브랜드 슬로건 시안은 **1)‘세상의 처음을 만든다’, 2)‘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3)‘기초가 미래다’**였다.

그룹 브랜드 슬로건은 삼표그룹의 지난 50년 역사를 표현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그룹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문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임직원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T/F는 도출된 세 가지 시안을 대상으로 임직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룹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차례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 631명 가운데 45%에 달하는 282명이 선택해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2안,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였다.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슬로건에 담긴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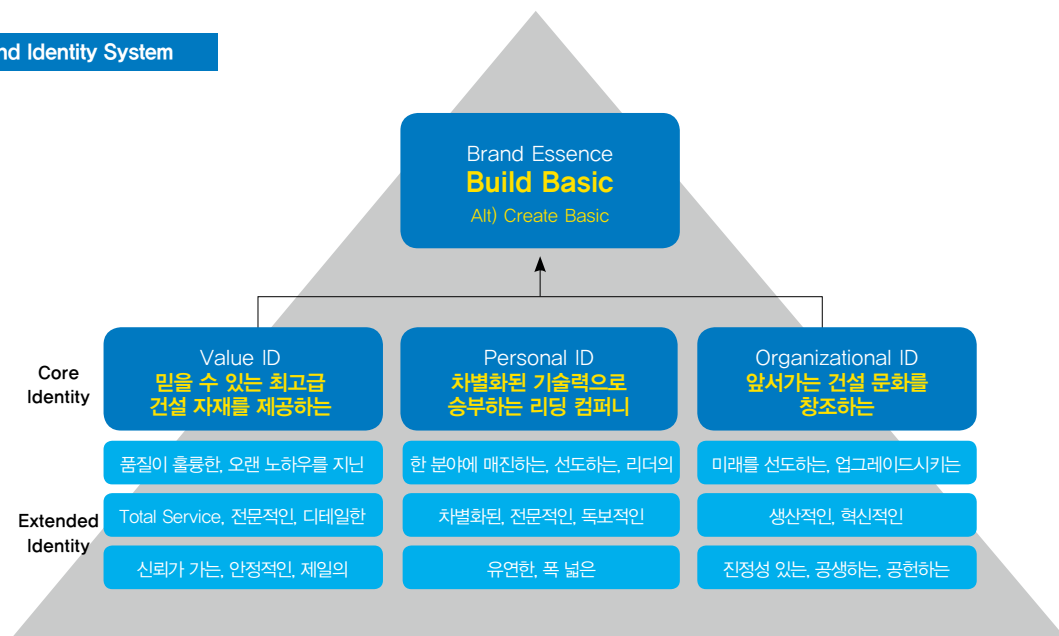
이번에 채택된 슬로건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는 건설기초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우리 그룹의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품고 있다.

‘새로움’이라는 말에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하는 우리 삼표그룹의 가치가 담겨 있다. 삼표그룹은 지난 50여 년 동안 기존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제품을 제시하며 건설기초소재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그룹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기초’라는 단어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기초소재 산업에 집중하는 **‘한 우물 전략을 추진하는 그룹’**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와 지식을 쌓아온 우리 그룹은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정도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도전을 거듭하는 우리 그룹의 위상을 담은 슬로건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는 향후 삼표그룹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금번 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을 통해 우리 그룹이 또 한 번 재도약하기를 고대해본다.

Brand Identity System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삼표

“처음에는 산업 특성상 삼표는 강인하고 보수적인 기업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삼표의 사내 문화를 경험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영진 심층 인터뷰 때 강조하신 ‘1·2차 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지만 4차 산업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그룹 브랜드 슬로건 제작을 계기로 삼표가 힘차게 재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기초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삼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브랜드 컨설팅 업체 ‘SLATE&AIR’ 이연경 차장

레미콘사업부의 새로운 동력 (주)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



(뒷줄 왼쪽부터) 출하실 명재웅 대리, 품질팀 전창용 대리, 생산팀 천호영 팀장
(가운데 왼쪽부터) 품질팀 채동병 과장, 생산팀 김성우 주임
(앞줄 왼쪽부터) 관리팀 이상목 과장, 관리팀 최진우 사원, 품질팀 김만수 차장, 관리팀 류태현 차장

2013년 9월 가동을 시작한 (주)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은 설립 2년 만에 그룹 내 레미콘 생산량 5순위 안에 드는 공장으로 성장했다. 다른 공장들의 면적이 5,000평을 훌쩍 넘는 것에 비해 동서울공장의 부지 면적은 3,000평 남짓. 좁은 공간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고의 생산 효율을 자랑하는 곳, (주)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을 찾았다.

글 홍보팀 이소정 사진 한수정(Day40 Studio)



(뒷줄 왼쪽부터) 영업팀 강수아 사원, 영업팀 옥승훈 사원, 영업팀 유기대 과장
(앞줄 왼쪽부터) 이동식 부장(공장장), 영업팀 김민욱 차장, 영업팀 공호석 과장,
영업팀 정성운 대리, 영업팀 조형우 사원

면적 대비 최고 생산량 자랑

공장 설립 역사가 짧고 부지가 좁다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의 생산량은 그룹 내 5순위 안에 꼽힌다. 부지 면적 대비 생산량은 그룹 내 최고, 그야말로 최대 효율을 창출하는 공장이다. 동서울공장의 생산성이 높은 비결은 좁은 대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 운영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부지가 좁은 탓에 운영 초기에는 공장을 오가는 차량들이 마당에서 영키기 일쑤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인근에 별도의 차량 주차 공간인 외부 주기장을 마련했다. 여기에 차량별 공장 출입 시간을 조절해 작업 중인 차량과 주기장에 대기하는 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D/T, BCT 등 원재료 차량의 입고 시간도 품목별로 조정했다. 공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출입 시간을 실시간으로 조절한 덕분에 차량 회전율을 높일 수 있었다. 레미콘 본부 및 중부권역 공장의 적극적인 도움 역시 동서울공장이 빠르게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시와 상생하는 친환경 공장

돔 형식의 실내 설비는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의 자랑거리다. 골재 야적장뿐만 아니라 폐수 처리장, 배치 플랜트까지 실내에 모든 시설을 갖춘 공장은 그룹 내에서 동서울공장이 유일하다. 돔 형식의 골재 야적장은 실외 야적장에 비해 비산먼지 발생량이 적어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눈이나 비 같은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해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장점도 있다. 폐수 처리장도 실내에 위치해 세륜수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차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공장을 설립하려는 국내 중소 레미콘 기업은 물론 일본의 레미콘사에서도 실내 설비를 벤치마킹하고자 동서울공장을 찾아올 정도라고 하니 그 우수성을 짐작할 만하다.



우수한 차량 운영 체계 도입으로
면적 대비 최대 효율 창출



(주)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은 명실상부한 레미콘사업부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력을 갖춘 친환경 공장을 목표로 하는 동서울공장은 현재 '품질 안정화 정책 시범 공장'으로 지정되어 제품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품질 경쟁력 No.1 공장으로!

공장 설립 4년 차에 들어선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은 명실상부한 레미콘사업부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서울공장의 최종 목표는 최고의 품질력을 갖춘 친환경 공장으로 거듭나는 것. 현재 동서울공장은 그룹의 '품질 안정화 정책 시범 공장'으로 지정되어 제품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레미콘사업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의 남은 2017년이 기대된다.

2016년 그룹 환경안전평가 1위 달성 삼표기초소재(주) 당진슬래그 공장

삼표기초소재(주) 당진슬래그 공장은 2016년 그룹 환경안전평가에서 최우수 공장으로 뽑힐 정도로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열심이다.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 당진슬래그 공장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글 홍보팀 이소정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침 국민체조 2. 차량 안전 운전을 위한 바닥 도색 3. F/A 이동 배관 곡각부 강판 보강



세심한 관심으로 만든 특별한 작업복

네 개의 시멘트사가 위치한 평택항 서부두 3번 선석. 하루 평균 120명이 근무하는 서부두에서 형광색 안전 작업복을 입은 삼표기초소재 당진슬래그 공장 임직원들은 단연 눈에 띈다. 김대영 공장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송현우 사원이 디자인한 작업복은 코스모스가 그려진 사일로와 더불어 당진슬래그 공장의 트레이드마크다.

“다른 시멘트사 직원은 작업복 위에 안전 조끼를 덧입는데, 우리 임직원은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되니 아주 편해요.”

당진슬래그 공장의 작업복을 소개하는 김대영 공장장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진다. 이곳에서 특수 제작한 작업복은 기존에 착용하던 망사 안전 조끼에 김대영 공장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망사 안전 조끼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자칫 작업 중 설비물에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게다가 여름에는 조끼에 피부가 쏘려 고생하는 직원도 여럿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당진슬래그 공장에서 새롭게 제작한 작업복은 별도의 안전 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형광색으로 제작해 야간에도 뚜렷하게 눈에 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관리팀 양원석 과장 역시 실제로 착용해보니 훨씬 간편하고, 활동성이 좋아 작업 효율성도 높아졌으며 작업복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전 수칙 생활화로 안전 문화 정착

임직원의 안전을 생각하는 당진슬래그 공장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장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평균 200대. 출하되는 제품군이 많다 보니 차량 동선이 엉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슬래그 공장은 제품군별 출하 동선을 정해 바닥을 도색했다. 들어오는 차량은 오른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왼쪽으로 동선을 구분한 덕분에 수백 대의 차량이 오가도 불편함이 없다.

생산직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 국민체조 역시 당진슬래그 공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밤새 굳은 몸을 풀어주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작한 국민체조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생산팀에서는 그날 이루어지는 공정별 특성에 맞는 안전 수칙을 제작해 매일 아침 안전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 공정별로 위험 요소가 다르다 보니 각각의 작업에 맞는 안전 지침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됐던 것이다.

공장이 설립되던 해부터 시작된 당진소방서와의 비상 훈련도 올해로 7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진슬래그 공장은 비상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 구난, 진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훈련하고 있다.

작업 설비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바람이 많이 부는 평택항의 특성을 고려해 슬래그는 실내 야적장에 보관하고, 비산 먼지 최소화화를 위해 네 개의 스프링클러를 상시 작동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용 물은 수재 슬래그에 포함된 수분을 받아 재활용해 상수도까지 절약할 수 있었다.

F/A 이송 배관 곡각부는 마모를 대비해 강판으로 보강했다. 배관 내 F/A 이동에 의한 마찰로 곡각부가 마모돼 분말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또 컨베이어 벨트와 에어슬라이드는 밀폐형으로 설치해 원재료 입고에서 생산 투입까지 전 제조 과정에서 비산 먼지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컨베이어 테일 드럼과 회전체에는 방호 덮개도 설치했다.

“실제로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한 해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 피복부터 설비 방호 덮개 설치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덕분에 당진슬래그 공장은 2016년 그룹 환경안전평가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미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삼표기초소재 당진슬래그 공장이야말로 우리 그룹이 ‘안전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삼표레일웨이(주) 분기기



국내 최초로 분기기 시장에 뛰어들어
철도 궤도 시공 능력 No.1 기업으로 우뚝 선
삼표레일웨이(株). 현재 해외 9개국에
분기기를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삼표레일웨이(株)가 승승장구한 건 열차를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기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
분기기 국산화의 주역, 삼표레일웨이(株)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본다.

글 홍보팀 김선영

국내 분기기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다

우리나라 분기기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말, 철도청이 발족하면서 국내 최초로 분기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철도청에서 생산한 분기기는 관절식 분기기로 생산 설비와 기술력의 한계로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 우선 당시에는 열차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레일이 곡선형이 아닌 직선형으로, 열차가 분기기 구간 진입 시 충격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분기기를 구성하는 장치들을 결합할 때 다량의 볼트가 사용되어 유지 보수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분기기 산업이 취약했던 1980년대, 분기기의 시장성을 미리 내다본 곳이 강원산업이었다. 강원산업은 1980년에 철도사업부(現 삼표레일웨이)를 신설하고 사기업 최초로 분기기 개발과 자체 생산에 도전했다. 그 시절 강원산업이 생산한 제품은 탄성 분기기로, 기존에 철도청에서 생산하던 관절식 분기기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었다.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노선이 원곡선형으로 돼 있어 열차와의 충격이 적었으며 덕분에 열차의 흔들림도 크게 줄었다. 또 기존에 볼트로 연결했던 분기기 내 장치들을 용접으로 대체, 체결 구조를 단순화해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시켰다. 탄성 분기기는 관절식 분기기를 대체할 만한 제품으로 인정받아 경부선 병점역에 성공적으로 시험 부설되었고, 이를 계기로 강원산업은 국내 최초로 철도청에 탄성 분기기를 납품하면서 대한민국 분기기 시장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삼표레일웨이(株) 분기기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2년, 강원산업에 낭보가 전해졌다.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계획과 더불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설비 계획 및 기술력 평가를 시행해 강원산업을 분기기 생산 적격 업체로 지정한 것이다. 이후 강원산업은 1997년 충청북도 오송에 국내 최초의 분기기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프랑스 분기기 회사 보슬로고지퍼(Vossloh Cogiefer)와 협약을 맺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고속 분기기 개발에 속도를 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98년 고속 분기기 개발에 성공한 강원산업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서울-대구)에 고속 분기기를 설치하면서 자타공인 국내 분기기 시장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2단계 구간(대구-부산) 사업을 앞두고 강원레일테크(前 강원산업 철도사업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가 외환 위기,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착공을 지연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강원산업은 2단계 사업이 착수되길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2단계 구간을 재추진하게 됐으나 1단계 구간의 자갈 궤도와 달리 2단계 구간에 콘크리트 궤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궤도에는 콘크리트도상 고속 분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해당 분기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술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독일의 분기기 회사 BWG의 콘크리트도상 고속 분기기를 2단계 구간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삼표이앤씨(前 강원레일테크)는 보슬로고지퍼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콘크리트도상 고속 분기기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했다.

다. 그 결과 삼표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도상 고속 분기기 기술을 개발해 2009년 11월 현장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분기기를 사용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 삼표이앤씨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대만부터 중동까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표레일웨이(株)

현재 삼표레일웨이(前 삼표이앤씨)는 국내 최고의 분기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갈도상 탄성 분기기, 콘크리트도상 고속 분기기, 노스가동 분기기, 경전철용 직결식 분기기 등 여러 종류의 분기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곳곳에 업적을 남기고 있다. 실제 경부고속철도 외에도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 원주강릉고속철도사업에 분기기를 전량 납품해 그 저력을 증명했다. 한편 삼표레일웨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며 업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대만을 비롯, 베트남, 파키스탄, 이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에 분기기를 수출했으며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 현지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또 경쟁력 있는 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해외 사업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무지였던 국내 분기기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들어 국내 최초로 국산화의 꿈을 실현한 철도 산업의 대표 기업, 삼표레일웨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삼표레일웨이가 다시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할 날을 기대해본다.



※1980년 강원산업(株) 철도사업부 신설과 함께 출범한 삼표레일웨이(株)는 1994년 강원산업이 설립한 삼표궤도(株)가 전신이다. 2000년도에 삼표궤도(株)는 (주)강원레일테크로 사명을 변경했고 2005년에 삼표이앤씨(株)로, 2016년에는 삼표레일웨이(株)로 사명을 변경했다.



10년의 세월로 다져진 끈끈한 우정

고재영 부장이 문정선 실장을 처음 만난 건 10년 전.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면서 두 사람은 갑론을박했었다. 그래서인지 문 실장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했다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돌도 없는 사이가 됐다. 동료애를 넘어 오래된 벗으로서 끈끈한 우정을 쌓고 있는 그들. 함께 피자를 먹으며 웃고 즐기는 모습에서도 두 사람 간의 돈독함이 묻어난다. 10년을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서로의 든든한 러닝메이트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삼표산업 개발2팀 고재영 부장 &
한국골재협회 기획실 문정선 실장

당신은 나의 든든한
러닝메이트입니다

(주)삼표산업 개발2팀 고재영 부장에게는 10년째 동고동락하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가 있다. 바로 한국골재협회 기획실의 문정선 실장.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이제 돌도 없는 든든한 파트너가 된 문정선 실장을 만나러 고재영 부장이 양손 가득 피자를 들고 한국골재협회를 찾았다.

글·사진 홍보팀 김선영



▲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고재영 부장(오른쪽)과 문정선 실장. 두 사람이 함께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To. 한국골재협회 문정선 실장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실장님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실장님과 처음 만나 어색한 인사를 나눈 것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걸 보면 저희 두 사람 모두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뛰어주셔서 마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10년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지 각자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실장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지금처럼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11명이라는 많지 않은 직원 수에도 삼표의 어려운 사정이라면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서 돌봐주시는 성실함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 역시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전보다 여건이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의 마음으로 함께 도우며 같은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지나온 날들을 흐뭇하게 회상할 시간이 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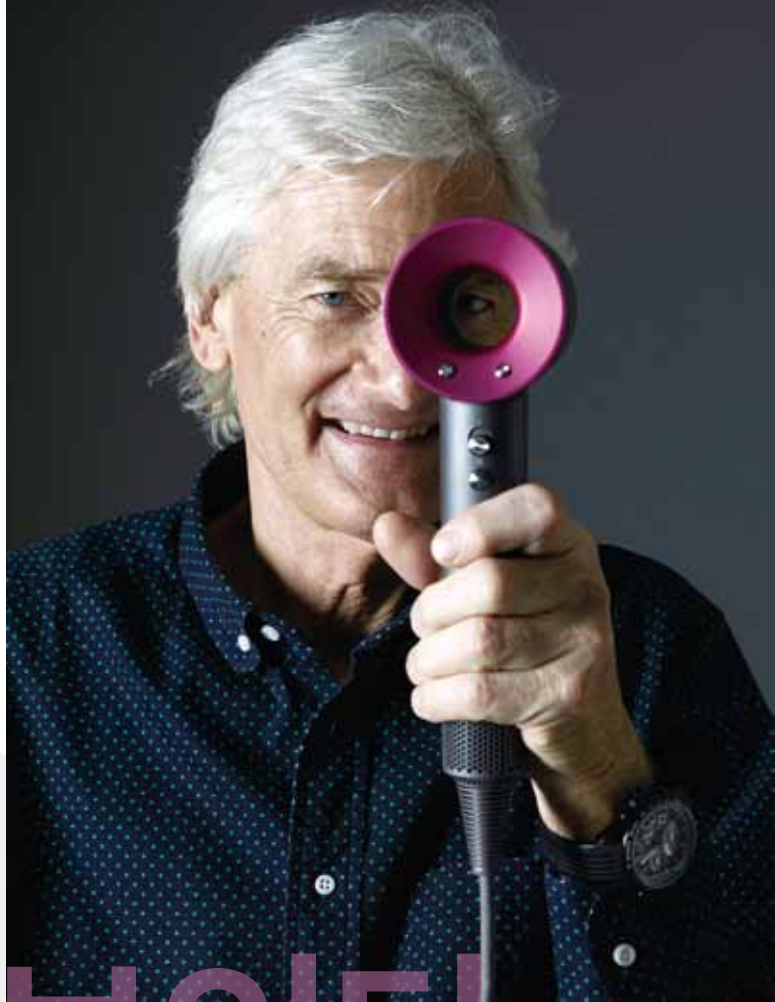
실장님, 한결같은 저의 동반자이자 참된 벗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골재협회 임직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From, (주)삼표산업 고재영 부장

제임스 다이슨의 빛나는 도전정신 관점을 바꾸면 혁신이 보인다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을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한
영국의 스티브 잡스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
수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목표를 이룬 비결은
무엇일까? 일상 속에서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글 박숙철(CnE 혁신연구소 소장)
사진 제공 다이슨(Dyson)



보인다

실천 하나! 불편을 아이디어와 연결하라

다이슨은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린다. 진공청소기나 선풍기 등 역사가 오래된 기구들을 IT 기기 못 지않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개량했기 때문이다. 그가 기존 제품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태도에서 출발했다. 바로 불편을 참고 넘기지 않는 집요함이다. 초기 개발 제품인 정원용 수레 ‘볼베로(Ballbarrow)’는 농장에서 사용하던 수레가 무른 땅에서 곧잘 빠지고 바퀴가 자주 펑크가 나는 점이 불편해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그는 타이어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공에 물을 채워 바퀴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역시 기존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먼지 봉투에 먼지가 쌓이면서 흡입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을 시작한 제품이다.

▶ **적용** 혹시 일상 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는가? 불평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라. 모든 혁신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실천 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고정관념’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하게 굳어진 생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화된다. 예컨대 ‘100년도 넘게 이렇게 해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다이슨은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렸기에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폭이 좁은 바퀴를 써온 수레의 바퀴를 플라스틱 공으로 바꾼 것도, 진공청소기라면 당연히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먼지 봉투를 없앤 것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람을 일으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날개를 없애고도 더 센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한 것도, 모터를 손잡이 부분에 넣어 성능과 편리성을 현격하게 개선한 헤어드라이어를 개발한 것도 마찬가지다.

▶ **적용** 오래 그런 것으로 인식하던 일들을 의심해보라.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실천 셋! 실패? 성공으로 향하는 실험일 뿐

다이슨이 처음 창업한 회사에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개발을 제안했을 때 동업자들은 “그렇게 좋은 진공청소기가 있다면 후버(미국 진공청소기 회사)에서 진작 내놓지 않았겠어?”라며 거부했다. 결국 동업자들과의 불화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집에 딸린 낡은 창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실패해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결국 그는 무려 5년 동안 5,126번의 실패 끝에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청소기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역경은 계속됐다. 대기업들은 생산을 거절하는 한편 싼값에 특허를 가져가기 위해 방해 공작을 벌였다. 이후 한 일본 회사에 특허를 팔아 자금을 확보한 그는 다시 7년간 개발에 매달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했고 지금의 ‘다이슨’사를 세웠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적용** 혁신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를 하나의 ‘실험’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하라. 에디슨이 그랬고 다이슨이 그랬던 것처럼.

실천 넷!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완벽을 피하라

제품의 디자인을 중시한 스티브 잡스에게 한 엔지니어가 더 이상 제품의 두께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하자 그는 수족관에 그 제품을 던져버렸다. 수족관에 던진 제품에서 기포가 몇 개 올라오는 것을 본 잡스가 빈 공간이 있다는 증거라며 두께를 더 줄이라고 하자 결국 더 얇고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이 나왔다는 일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이슨은 스티브 잡스와 닮았다. 다이슨이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개발하면서 5,126번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5,000번째의 제품이 형편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만하면 됐어’라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가 개발한 제품들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었겠는가?

▶ **적용** 뛰어난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을 실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확신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다이슨의 초기 진공청소기 'DC01'

삼표인 무한 도전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은 언제나 벅찬 감동을 줍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는 그 빛나는 순간, 삼표 가족의 가장 특별했던
도전 경험을 생생한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정리 편집실



대 상

“하늘을 날면 어떤 기분일까?” 누구나 생각해봤을 궁금
증을 풀기 위해 5,000m 프라하 상공에서 뛰어내렸습니
다. 그러나 현실은 시속 200km의 바람 때문에 얼굴이 오
징어가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 관리팀 최현호 대리



금 상

2014년 여름,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 봉사활
동을 가서 현지 주민들과 친구처럼, 때로는
형·동생처럼 지내며 15일간 울고 웃었습니다.
삼표자원개발(주) 김재호 대리

은 상



보라카이 여행 중 15m 높이에서 바다로 뛰어내
리는 사진입니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다양
한 국적의 사람들 사이에서 1등으로 뛰어내려
성취감도 컸던 짜릿한 추억입니다.
(주)삼표산업 혼화제공장 영업과 임용주 대리



1년 전, 취미인 백패킹으로 혼자 제주도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텐트를
치고 이틀을 보냈죠. 저 텐트의 무게가 1kg밖에
안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주)삼표 경영관리팀 정다혜 과장



생애 첫 아마추어 대회 도전기! 두근두근 떨리
는 마음을 다잡으며 열정 하나로 도전했습니다!
(주)삼표산업 환경안전팀 한용재 사원

동 상



꼭 해보고 싶었던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했습니
다. 일상에서 벗어나 하늘을 누빈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삼표 시멘트SM팀 이지윤 사원



난생처음 도전한 스킨스쿠버! 고된 훈련 끝에
장비를 '풀 장착'하고 첫 입수 직전 찰칵~ 더욱
열심히 훈련해서 여름휴가 때는 바다에서 실력
을 마음껏 펼쳐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2년 전, 아내와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평일 저
녁에 배달을 돕고 회사 업무가 많을 때는 가게
정리 후 다시 회사로 가서 업무를 마무리하지
요, 우리 부부의 현재 진행형인 도전이랍니다.
삼표레일웨이(주) 개발2팀 황경중 과장



2016년 5월에 시작해 1년여 동안 도
전한 서울 둘레길 완주! 드디어 2017
년 5월 5일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 더 뜻깊었습니다.
(주)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관리팀 김정옥 차장



2007년 10월, 헌혈 30회 봉사로 대한
적십자 유공은장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헌혈 50회 봉사로 적십자 유공금장을 수상하고
자 합니다. 삼표인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주)삼표시멘트 인사총무팀 최진호 과장

무더위 나는 특효, 영양 만점 콩국수

얼음 동동 띄운 새하얀 콩국에 삶은 국수를 넣고 채 썬 오이를 얹은
콩국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다. 시원하고 고소한 맛 속에
감춰진 오랜 역사와 영양 상식을 알아본다. 글 임이안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슈퍼 푸드, 콩국수

예부터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그 효능을 인정 받아왔다. 선조들은 콩을 활용해 된장, 두부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특히 한여름에는 얼음을 띄운 콩국에 밀국수를 말아 무더위를 났다. 콩국수의 역사는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 말 편찬된 조리서 <시의전서>에는 “콩을 물에 담가 불리고 삶아서 가는 체에 밭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여기에 밀국수를 말아 깻국처럼 고명을 얹어 먹는다”고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콩국으로 영양을 보충했다는 기록이 있다. 선조의 건강을 지켜주던 콩국수는 현재에도 한여름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보양식이자 별미로 인기가 있다.

주재료인 콩은 완전식품으로 단백질과 지방,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을 채우는 데 손색이 없다. 또 콩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성인병을 예방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방지해준다. 한편 밀은 성질이 차면서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영양이 풍부한 콩과 밀의 조화는 여름과 최상의 궁합이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지치기 쉬운 여름, 입맛이 없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짜증이 잘 난다면 보양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다. 입맛을 돋우고 허해진 속을 든든히 보강해줄 고소한 콩국수 한 그릇이 내 몸의 기운을 북돋워줄 것이다.

콩국수 레시피

재료 흰콩 2컵, 소면 200g, 오이·토마토 1개씩, 통깨·소금 혹은 설탕 약간씩

❶ 흰콩은 하룻밤 정도 물에 불린다. ❷ 불린 콩을 10분 정도 삶는다. ❸ 믹서에 콩과 콩 삶은 물을 부어가며 곱게 갈아 차갑게 보관한다. ❹ 오이와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고, 소면은 삶아 찬물에 헹궈 체에 밭친다. ❺ 그릇에 소면을 담고 콩국물을 부은 후 오이채와 토마토, 통깨를 뿌린다.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해서 먹는다.

만나손칼국수

직접 농사지은 콩과 참깨와 땅콩을 갈아 만든 진하고 고소한 콩국물로 유명하다. MN <수요미식회>에서 콩국수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31길 29

시간 월~토요일 11:00~18:00
(일요일 휴무)

소문난 콩국수 맛집

모란국수

엄선한 국산 콩을 맷돌로 갈아 만든 이곳의 콩국물은 뽕알고 부드러기로 소문이 났다. 수타면의 쫄깃함과 콩국물의 구수함이 어우러진 맛집이다.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 8번길 11

시간 화~일요일 11:00~20:00
(월요일 휴무)

TOPIC



삼표레일웨이㈜, 대만에 3,355만 달러 규모 분기기 수출

삼표레일웨이㈜는 지난 4월 대만 철도청 TRA(Taiwan Railways Administration)에서 발주한 분기기 입찰 경쟁에서 50kgN PCT 분기기 600대를 수주했다. 이번 분기기 수주는 지난 2011년에 수주한 1,500만 달러의 2배를 뛰어넘는 3,355만 달러 규모로, 대만 수출 실적 중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번 입찰은 공개 경쟁으로 진행되었으며 삼표레일웨이㈜를 비롯해 프랑스의 보슬로그지퍼, 일본의 야마토카지 총 3개사가 참여했다. 이 중 삼표레일웨이㈜는 품질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되었다.

삼표레일웨이㈜ 강기동 사장은 “금번 수주를 통해 그동안 국내 고속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쌓아온 삼표레일웨이㈜의 저력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제품력 향상과 마케팅 강화로 더 많은 국가에 분기기를 수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표

㈜삼표 IT부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 LIMS 구축

삼표 IT부문은 지난 6월, 품질 최우선 공장 운영의 일환으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의 시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LIMS) 구축을 1차 완료했다고 밝혔다. LIMS 도입 이전에는 공정 검사, 제품 실험 시 결과 값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으나, 지금은 실험 장비에서 자동으로 실험 결과가 송신돼 오류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또 과거에는 Local PC에서 ERP로 데이터를 직접 옮겨야 했으나 LIMS에서는 실험값이 ERP로 자동 전송되고, 관리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 또한 크게 증대됐다.

IT부문 임춘식 상무는 “LIMS를 이용하면 업무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정확도도 증대될 것”이라며 “금번 LIMS 적용으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표 인재개발팀,

2017년 수시 입사자 1기 입문 과정 실시

㈜삼표 인재개발팀은 지난 5월 29~31일까지, 경주 삼표연수원에서 2017년 상반기 수시 입사자 42명을 대상으로 ‘2017년 수시 입사자 1기 입문 과정’을 실시했다. 경영관리팀 김한태 차장을 비롯한 사내외 강사진 6명은 ▲인사·복리후생 제도 소개 ▲SAMPYO WAY(삼표 연혁 및 핵심 가치 소개)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인사담당 최윤길 상무는 “신규 사원 42명이 입사했다는 것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표피앤씨㈜

삼표피앤씨㈜, 대한건축학회 주관 ‘2017년 건축도시산업발전 특성화 포럼’ 참석

삼표피앤씨㈜는 지난 4월 2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2017년 건축도시대회’의 ‘건축도시산업발전 특성화 포럼’에 참석하여 ‘공업화 PC 신제품 개발과 현장 적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삼표피앤씨㈜는 Double Wall 공법의 시공 사례 및 적용 현황, 기대효과 등 자사 PC 제품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설계-생산-시공-관리 시스템 개발 ▲PC 신제품 개발 ▲PC 신소재 개발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당사의 비전을 제시했다.

삼표피앤씨㈜ 최명식 대표는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Graphic Concrete 등의 외장재 PC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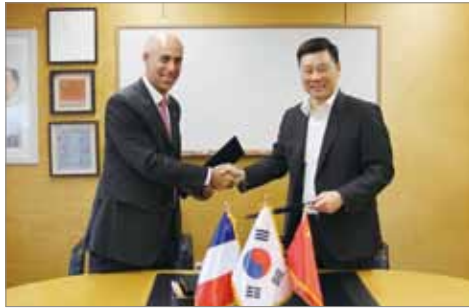
㈜삼표산업

㈜삼표산업 몰탈부문, ParexDavco와 LOI 체결

㈜삼표산업 몰탈사업부는 지난 5월 17일, Parex 그룹의 중국 법인인 ParexDavco와 '기능성 모르타르 시장 진입을 위한 LOI(Letter Of Intent: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몰탈사업부는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에서 CTA(Ceramic Tile Adhesive), WP(Waterproofing Mortar)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삼표산업 몰탈사업부는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일환으로 ParexDavco와 당사의 제품 샘플을 교환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이성연 ㈜삼표산업 몰탈사업부 대표는 “기능성 몰탈 제품을 포함한 ParexDavco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금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국내 몰탈 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김목규 사원, 대한건축학회

논문상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발표상 수상

㈜삼표산업 품질경영팀 김목규 사원은 지난 4월 27일과 5월 11일,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2017 건축도시대회 논문상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주관한 2017 봄 학술대회 학술발표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목규 사원이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수상한 논문은 ‘저온 환경하 콘크리트 시공을 위한 영하 온도 경화 가능형 시멘트 모르타르 및 단열·발열 거푸집 개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이고,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수상한 논문은 ‘3성분계 콘크리트의 경시 변화 후 유동화에 따른 작업성 및 강도 특성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이다.

김 사원은 “앞으로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해 콘크리트 관련 기술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삼표기초소재㈜

삼표기초소재㈜,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삼표기초소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충청도청 이 예산 덕산 리솜캐슬에서 개최한 ‘2017년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진슬래그 공장 무지개 분임조는 ‘시료 분석 방법 개선으로 고객 불만 건수 감소’ 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당진슬래그 공장 징검다리 분임조는 ‘Slag Mill 분쇄 원료 투입 라인 개선으로 로스율 감소’ 주제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삼표기초소재 분임조가 도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첫 출전에 참가 팀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삼표기초소재㈜ 이성연 대표는 “이번 수상은 품질 경영에 대한 열정과 노고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분임조 활동을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경영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내 분임조 활동을 적극 장려해온 삼표기초소재㈜는 오는 10월경 ‘제2회 분임조 경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 사업 협약 체결

㈜삼표시멘트는 지난 5월 22일 경영컨설팅 전문 회사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한 직무 분석 및 직무 기술서 보완에 관한 것으로, ㈜삼표시멘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요 직무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임직원 교육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삼표시멘트는 오는 9월까지 생산, 설비 보전 등 주요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사내 직무 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생산 설비, 생산 관리 등에 관한 훈련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는 금번 업무 협약을 발판으로 향후 NCS 컨설팅 노하우를 전 직무에 확대 적용해 각각의 직무에 맞는 교육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인사총무팀 이재식 상무는 “금번 컨설팅 협약을 통해 직무 교육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표시멘트, 근로자의 날 기념식 개최

㈜삼표시멘트는 지난 4월 28일 삼척공장 사무동 강당에서 선진 노사문화 확산 및 경영 목표 달성에 헌신한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도지사, 시장,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공장장, 노조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자사 근로자 중에는 품질기획팀 심연석 차장, 영업기획팀 윤기선 대리를 비롯해 총 11명이 각각 업적 우수상, 모범 반장상, 모범 종업원상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업적 우수상을 받은 영업기획팀 윤기선 대리는 “업적 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삼표시멘트의 영업 실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표시멘트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삼척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삼척시장, 고용노동부 삼척고용센터 소장, 삼척공장장 등 노사정 대표들과 ㈜삼표시멘트 임직원 및 삼척 지역 타사 근로자 총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삼표시멘트, 세계 물의 날 맞아 환경 정화 활동 실천

㈜삼표시멘트 임직원은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맹방해수욕장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해양 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진행된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는 삼척공장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임직원들은 관광객 등이 투기한 쓰레기와 해류를 타고 흘러온 부유물 등 약 200kg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사를 주관한 환경안전팀 박재호 부장은 “당사는 삼척시의 향토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삼척시의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네비엔

㈜네비엔, 담배 필터용 일반 활성화탄 최초 수주

㈜네비엔이 활성화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담배 필터용 일반 활성화탄 납품 업체로 선정돼, 5월 15일 KT&G에 활성화탄 납품을 시작했다. ㈜네비엔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활성화탄 입찰 참여 업체 자격을 얻기 위해 KT&G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샘플 테스트와 공장 시스템 검사를 강화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지난 3월 말 KT&G 담배 필터용 일반 활성화탄 납품 업체로 최종 낙찰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네비엔 부여사업소 광병도 상무는 “향후 단가가 높은 담배 필터용 활성화탄 수주를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네비엔 박영동 대표, 대통령 표창 수상

㈜네비엔 박영동 대표가 지난 6월 9일 포스코센터에서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하는 ‘제18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40년간 철강 업계에 종사하며 철강자원협회장으로서 철스크랩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선진화와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인 박영동 대표는 “이번 표창장은 철강 업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철스크랩 산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9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은탑산업훈장,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했다.



삼표해운(주)

삼표해운(주), 진안호 취항식 및 명명식 개최

삼표해운(주)은 6월 8일 목포항 진안호 선상에서 진안호 취항식 및 명명식 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진안호 취항식은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삼표해운(주) 정진호 대표이사, ㈜삼표시멘트 이철 부사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진안호의 신규 취항을 축하했다.

삼표해운(주) 정진호 대표는 “진안호는 기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멘트 전용선과는 다른 일반 화물선으로 시멘트뿐만 아니라 타 제품군도 운반할 수 있다”며 “금번 진안호 취항은 앞으로 당사의 해운 물류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신입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경한	포항하역팀	황재상	사원	2017-04-28
	회계팀	권한욱	사원	2017-06-12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품질과	최준영	사원	2017-05-10
㈜네비엔	영업1팀_동대구	우아름	사원	2017-05-02
	영업1팀_서대구	장현주	사원	2017-05-02
네비엔REC	자원화팀	이민호	사원	2017-05-15
당진HE	당진협력팀	김동호	사원	2017-05-10
	당진협력팀	이상현	사원	2017-05-23
	당진협력팀	정상열	사원	2017-05-15
㈜삼표	BCT운영팀 당진FA출하실	이대규	사원	2017-04-17
	BCT운영팀 당진log출하실	김진우	사원	2017-05-15
	D/T영업팀 동부물류영업소	최재준	사원	2017-05-15
	D/T운영팀 남서영업소	백남일	사원	2017-05-15
	D/T운영팀 북부물류영업소	정보성	사원	2017-05-15
	D/T팀	이석민	사원	2017-06-19
삼표기초소재㈜	예산사업소 생산팀	김지수	사원	2017-05-22
	정비팀 삼척사업소	박형진	사원	2017-05-10
삼표레일웨이㈜	정비팀 삼척사업소	이시영	사원	2017-05-10
	개발2팀	김옥진	사원	2017-06-01
	기술연구소 개발1팀	정재훈	사원	2017-04-17

경력 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경한	스크랩기획팀	안성현	사원	2017-04-24
㈜네비엔	콘크리트 설계팀	장양준	대리	2017-05-15
	콘크리트 설계팀	채지민	사원	2017-05-15
	영업1팀_동대구	신성호	사원	2017-04-10
㈜삼표	D/T영업팀 포천물류영업소	정기혁	사원	2017-05-15
	인사팀	남현웅	대리	2017-04-24
	전기제어팀	조상혁	대리	2017-05-08
삼표기초소재㈜	당진슬래그공장 생산팀	박상호	사원	2017-05-15
	정비팀 화성정비	이지한	사원	2017-05-10
	증기팀	황의익	사원	2017-05-10
	증기팀 예산사업소	양범석	계장	2017-04-17
	천안슬래그공장 생산팀	김수민	사원	2017-05-15
삼표레일웨이㈜	PC영업팀	지현준	과장	2017-06-07
	PST제천공장 생산팀	한영준	사원	2017-06-19
㈜삼표산업	콘크리트신규사업팀	차의식	차장	2017-04-17
	IT팀	김경원	사원	2017-05-08
	계량팀	김보성	주임	2017-06-12
	김포공장 영업과	유재원	사원	2017-06-01
	사업개발팀	박기령	과장	2017-06-01
	송도공장 관리과	노종화	사원	2017-05-22
	안성공장 관리과	이길수	주임	2017-05-15
	안양공장 영업과	전재욱	대리	2017-06-05
	양주공장 영업과	박봉수	대리	2017-06-19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삼표산업	서부공장 관리과	박재훈	사원	2017-04-24
	서부공장 영업과	이동혁	사원	2017-06-01
	아산공장 영업과	고영준	사원	2017-06-12
	안성공장 영업과	박재원	사원	2017-04-10
	안성공장 품질과	소병탁	사원	2017-05-10
	안양공장 관리과	서경원	사원	2017-04-10
	양주공장 품질과	남문식	사원	2017-05-10
	용인공장 영업과	성기영	사원	2017-06-01
	용인공장 영업과	최명지	사원	2017-04-05
	원료검사팀	김준식	사원	2017-06-19
	원료검사팀	이윤호	사원	2017-06-19
	원료검사팀	한승태	사원	2017-06-19
	원주공장 품질과	홍준영	사원	2017-05-10
	인천물탈공장 생산팀	복승한	사원	2017-05-22
	풍납공장 관리과	전택수	사원	2017-05-22
삼표피앤씨㈜	화성공장 관리과	송윤호	사원	2017-05-15
	화성물탈공장 품질팀	박휘철	사원	2017-04-24
	제천공장 생산팀	박은찬	사원	2017-04-14
	제천공장 생산팀	우병용	사원	2017-04-14
	제천공장 생산팀	이종환	사원	2017-06-09
	제천공장 생산팀	천성호	사원	2017-04-17

※ 대졸 공채 제외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 일자
㈜삼표산업	용인공장 관리과	정호세	주임	2017-06-19
	원주공장 관리과	전용선	주임	2017-06-12
	인재개발팀	김진우	과장	2017-04-26
	인천물탈공장 생산팀	염진호	사원	2017-05-08
	포항공장 관리과	이현중	차장	2017-04-14
	포항공장 영업과	김종기	대리	2017-05-10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강영화	사원	2017-04-10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김경석	사원	2017-06-12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박관문	계장	2017-05-15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박정식	사원	2017-04-10
㈜삼표시멘트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유재기	계장	2017-05-15
	충청영업팀	유지안	사원	2017-04-17
	해운관리팀	김낙동	선장	2017-04-18
	해운관리팀	김보현	항사	2017-04-15
	해운관리팀	사재웅	기사	2017-04-12
	해운관리팀	유지창	항사	2017-04-05
	해운관리팀	윤찬영	항사	2017-04-12
	해운관리팀	장인혁	항사	2017-04-04
	해운관리팀	조영일	항사	2017-04-10
	구조팀	김준영	대리	2017-06-19
삼표피앤씨(주)엔지니어링	CS팀	권동철	과장	2017-06-12
팬트랙	연미유지보수팀	김요한	사원	2017-06-05
	연미유지보수팀	주만택	부장	2017-05-08
홍명산업	생산팀	탁인구	사원	2017-05-08



독자 퀴즈

다음은 <꾸삐 씨의 행복 여행>에 나오는 문장으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人 人 을 걷는 것이다.”

위 문장은 2002년 출간된 소설 <꾸삐 씨의 행복 여행>에서 주인공 꾸삐 씨가 소개하는 다섯 번째 ‘행복의 비밀’이다. 소설 속 주인공 꾸삐 씨는 파리의 정신과 의사로, 문득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후 진료실 문을 닫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선 꾸삐 씨는 여행에서 깨달은 행복의 비밀을 수첩에 적어간다. 꾸삐 씨의 수첩에 담긴 행복의 비밀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소설 <꾸삐 씨의 행복 여행>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저자 프랑수아 로로르가 꾸삐 씨의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행복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울어름에는 삼표 가족들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존재하는 행복을 찾아서 마음껏 도전하기 바란다.

✉ 정답을 적어 8월 10일까지 이메일[sojeong@sampyo.co.kr 홍보팀 이소정 사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상상력



당첨을 축하합니다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영업팀 정민승 대리

㈜네비엔 당진사업소 SLAGE팀 최명식 사원

㈜삼표산업 혼화제공장 영업과 임용주 대리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제품팀 박광명 기사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기획팀 이소영 사원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자 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삼표 홍보팀

이소정 사원 sojeong@sampyo.co.kr

김선영 사원 sy_kim@sampyo.co.kr

레미콘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운영팀

박종필 사원 pjp1027@sampyo.co.kr

골재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장성현 대리 clzls77@sampyo.co.kr

철도 삼표레일웨이(주) 경영기획팀

전지혜 사원 jh6906@sampyoenc.com

건설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기획팀

이소영 사원 sso4942@sampyopnc.com

분체 삼표기초소재(주)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철스크랩, 환경자원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IT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ins.com

물류 ㈜삼표 신규영업팀

황영만 대리 poireo@sampyo.co.kr

시멘트 ㈜삼표시멘트 인력개발팀

최진호 과장 jinho.choi@tongyang.co.kr